

왜 말하지 못했나요?

이제는 알아야 할

#문화예술계 성폭력

『이제는 알아야 할 폭력예방교육 사례 모음집』 카드뉴스 - 문화예술계, 미술계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전체 응답자 3,718명 중 1,513명(40.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응답 결과

54.1%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전해들은 적이 있음

40.7%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

25.6%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음

24%

없음

출처: 2018년 국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여성 응답자의 경우 **50.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무려 **87.6%**(1,326명)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54.1%

40.7%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

25.6%

24%

‘그냥 참고 넘어감’**1,326명****(87.6%)**

그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69.5%**(922명),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59.5%**(78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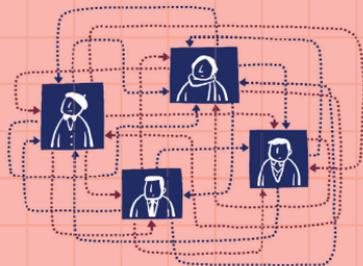
설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피해(2차 피해)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성폭력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1.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 성폭력

- 회사 등의 규범화된 조직이 존재하지 않지만 학연, 지연, 유명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력관계 속에 있으며, 업계 구성원들이 권력자의 범죄를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



2. 남성중심적 예술계의 권력구조

- 남성 중심의 위계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
- 예술대학의 경우 학생의 성비는 여성 80%, 남성 20%인 반면, 교수진의 성비는 반대. 뿐만 아니라 후원 혹은 지원의 결정권자 대다수가 남성임
-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8개 문화 예술기관 고위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임



3. 권력형 성폭력

- ✓ 피해자가 주로 작가 지망생, 학생, 예비/신인 예술가인 반면 가해자는 교수, 강사, 유명 작가, 계약 관계의 상사 등. 선배와 스승이 활동 영역의 동료, 심사위원, 비평가로 이어짐. 이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공고한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나타냄
- ✓ 작품활동, 인지도 등으로 얻은 문화예술계 내부의 문화권력은 출판·등단심사·전시기획과 맞물리며 제도화됨



4. '예술 표현의 자유'로 빙자되는 성폭력

- ✓ 성폭력에 둔감한 업계 풍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 예술 작품의 뮤즈 및 자유로운 연애 상대가 되길 강요받는 등 잘못된 예술관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5. 피해자가 완전히 고립되는 환경

- ✓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음. 이런 경제적 고립은 성범죄 신고를 불가능하게 하며, 결국 피해자가 문화예술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 초래

(자료: 여성문화예술연합 공동대표 이성미)

2016년 유명 큐레이터 A가 미술대학교 학생 B 씨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가 B 씨의 SNS로 친구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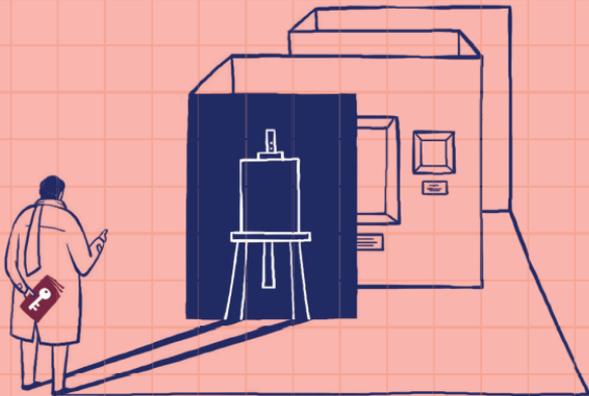
A

전시를 같이 보러가자



A

내가 기획하고 있는 전시가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B 씨는 유명 큐레이터에게
작업에 대한 조언과 전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 A와 만났으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A는 B 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B 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SNS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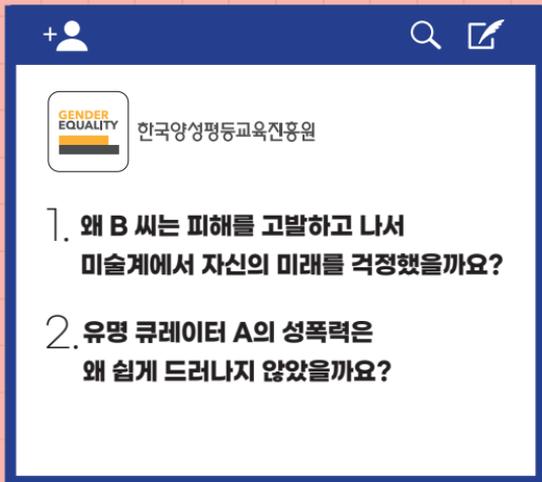
그러나 미술계 인사들은 B 씨의 폭로 글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며 A를 두둔하였습니다.

B 씨는 앞으로 자신이 미술 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이슈화되며

자신도 A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B 씨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문화예술계 #미술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된 카드뉴스입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0766793>